大學章句 새겨보이

〔연재 제13회〕

權 五 達
편집위원

맹자孟子【주】(承前)

맹자는 유가의 주요한 대표적 인물의 한 사람이지만 지위가 송대 이전에는 그다지 높지 않았다. 당나라 중엽에 한유韓愈(768~824)가 지은 《원도原道》에서부터 맹자의 반열은 선진先秦 유가 가운데 오직 공자의 도통道統을 계승한 인물로 받들기 시작하여 맹자의 '승격운동'이 출현하면서 맹자와 《맹자》의 지위가 점차 상승하였다. 송宋나라 신종神宗 희녕熙寧 4년(1071)에 《맹자》는 과거고시 과목 가운데 제일 첫번째 반열에 올랐고, 원풍元 6년(1083)에 맹자는 추국공鄒國公에 추봉追封되었으며, 다음해 공묘孔廟에 배향配享하였다. 원元나라 문종文宗 지순至順 원년(1330)에 맹자는 '추국아성공鄒國亞聖公'이라는 가봉加封을 받았으며 이후 아성亞聖이라 칭하게 되었고 공자 다음의 지위에 올랐다.

맹자는 사람의 성품이 본래 선하다는 것을 깨닫고 일찍이 말하기를 '사람은 누구나 남에게 참지 못하는 마음이 있다. 이것은 지금 어떤 사람이 갑자기 어린아이가 우물에 빠지려는 모습을 보았을 때 누구나 안타까워하고 측은한 마음이 들게 마련이기 때문이다. 이는 내심 어린아이 부모와 교제하기 위한 것도 아니요 마을 친구에게 칭찬을 듣고 싶어 그런 것도 아니며 구하지 않았다는 비난의 소리가 싫어서 그런 것도 아니다'하였다. 모든 사람은 남에게 참지 못하는 마음이 있는데 예를 들어 어린아이가 우물로 빠지려는 모양을 발견했을 때 결코 교정交情이나 성예聲譽 등 이해관계 때문에 이를 구하려는 것이 아니라 속마음의 본질이 선하기 때문에 무의식중에 달려가 구하게 된다는 것이다.

맹자는 선의 본질을 측은惻隱、수오羞惡、사양辭讓、시비지심是非之心으로 나누고 이것을 '사단四端'이라 하였다. 단端은 생각이 일어나는 비롯으로서, 맹자는 사단의 확충을 위해 노력해야만 도덕을 실천하는 것이고 덕성德性을 이루는 것이라 인식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선이 이미 마음속에 존재함에도 도리어 악행을 저지르는 사람이 있는데 이에 대한 맹자의 견해는 사람이 불선不善한 이유가 사사로운 욕심에 가로막혀 어리석음에 도달했기 때문이고, 마땅히 사사로운 이익을 놓아버려야 인의가 보존된다고 인식하였다. '백성은 존귀하고 사직은 그 다음이며 군주는 가벼운 존재다.'이 말의 의도는 인민이 제일 첫번째 자리에 있고 국가는 그 다음이고 군주는 마지막에 있다는 뜻이다. 맹자의 견해가 군주는 마땅히 인민을 애호愛護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하고 위정자는 백성의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명明나라를 개국한 주원장朱元璋은 《맹자절문孟子節文》을 편집할 때 《맹자》의 장구 가운데 '백성이 존귀하고 사직社稷(국가)은 그 다음이며 군주는 가벼운 존재다', '잔적殘賊(인의를 해치는 자)한 사람을 평범한 사내라 하는데 평범한 사내 주紂를 주벌誅罰했다는 말은 들었어도 임금을 시해하였다는 말은 듣지 못했다'는 등의 구절은 삭제를 명하였다고 한다.

맹씨孟氏의 연원淵源은 노나라 제15대 군주 환공桓公(?~694)의 둘째아들 경보慶父의 후손에게서 나왔다. 환공의 큰아들 태자 동同은 즉위하여 제16대 군주 장공莊公이 되고, 둘째아들 경보慶父는 중손씨仲孫氏가 되고, 셋째 숙아叔牙는 숙손씨叔孫氏가 되고, 넷째 계우季友는 계손씨季孫氏가 되었는데 장공 외에 이 세 아들을 삼환三桓이라 한다. 중손씨가 곧 맹손씨孟孫氏이다. 경보는 공손오公孫敖를 낳으니 곧 맹목백孟穆伯이고, 목백은 문백혜숙文伯惠叔을 낳고, 문백은 중손멸仲孫蔑을 낳으니 맹헌자孟獻子이며, 헌자는 중손속仲孫速을 낳으니 맹장자孟莊子이고, 장자는 유자질孺子秩을 낳고, 질은 중손확仲孫 을 낳으니 이가 맹희자孟僖子이며, 희자는 중손하기仲孫何忌를 낳으니 맹의자孟懿子이고, 의자는 맹유자설孟孺子洩을 낳으니 맹무백孟武伯이고, 무백이 중손첩仲孫捷을 낳으니 맹경자孟敬子이며, 춘추시대 이후에 들어와 그 헌자獻子의 둘째아들이 의백懿伯이고 중손갈仲孫①을 낳았다. 두예杜預(222~285, 자는 원개元凱)의 〈세족보世族譜〉에 의하면 의백은 곧 자복중숙타子服仲叔 이고 맹초孟椒를 낳았고, 초는 자복회子服回를 낳고, 회는 자복하子服何를 낳았는데 이 사람이 자복경백子服景伯이며 별칭으로 자복씨子服氏라 한다. 맹씨의 친족에 맹공작孟公綽과 맹지반孟之反이 있다. 맹의자의 아우는 남궁경숙南宮敬叔이다. 맹무백의 아우는 공기公期이다. 맹헌자는 현명한 대부로 일찍이 맹자가 칭찬한 바 있다. 장자莊子는 효성스럽고 공작公綽은 욕심이 없으며 지반之反은 자기 공을 자랑하지 않았는데 공자孔子가 칭찬한 바 있다. 희자僖子、의자懿子、무백武伯은 모두 공자와 아는 사이이고 공자를 흠경欽敬하였으며, 경자敬子는 증자曾子에게 교육을 받았다. 맹씨 집안은 스승을 존중하고 도를 중요시하여 그후 당연히 도리에 통달한 사람이 있었다. 맹자의 맹孟이 씨氏가 되니 마땅히 맹손의 후손이 되지만 세계世系를 자세히 알 수 없었기 때문에 조기趙岐(108~201, 동한東漢의 경학가經學家)는 '어떤 사람이 말하였다'로 의심했던 것이다.

맹자의 세계世系에서 대표적 인물로 45대손 맹녕孟寧은 송나라 인종仁宗 경우景祐 4년(1037)에 당시 연주兗州(지금의 산동성 연주시兗州市) 지사로 부임한 공도보孔道輔(987~1040)가 성현의 후예를 탐방하던 중에 만나 그의 추천에 의해 추현鄒縣 주부主簿가 된 이후 맹씨 문중에서 그를 중흥조로 부른다. 52대손 맹유공孟惟恭(1274~1349, 자 언통彦通)은 원나라 조정으로부터 제전祭田 30경頃, 전錢 3000민緡을 지원받아 맹묘孟廟를 대대적으로 증축 수리하고 제기를 정비하여 맹자의 제사를 받들었다. 56대손 맹희문孟希文(1433~1489, 자 사환士煥)은 조부 맹사량孟思諒(자 우도友道)의 추현 주부主簿직을 물려받았다. 조부 맹사량은 원나라와 명나라가 서로 전쟁을 하던 시기의 사람으로 전란이 평정된 뒤 추현 현감으로 내려온 계맹桂孟이 맹씨 후예를 탐방하고, 홍무洪武 원년(1368)에 중흥조의 구례舊例에 따라 추현 주부를 수여하여 맹자의 제사를 받들게 하였다. 이후 명나라 대종代宗은 경태景泰 3년(1452)에 맹희문에게 세습 한림원 오경박사翰林院五經博士를 봉하였고, 영종英宗 천순天順 3년(1459)에는 부친 맹극인孟克仁(자 신부信夫)에게 이 직위를 추증追贈하였으며 맹씨 집안의 한림원 오경박사 세습은 이때부터 시작되었다. 58대손 맹공조孟公肇(자 선문先文)는 그 아버지 맹형孟亨이 맹희문의 둘째 아들이다. 맹공조는 57대 한림원 박사 맹원孟元(자 장백長伯)이 죽은 뒤 그 아들 맹공계孟公鉬(자 탁문 文)가 나이가 어려 세습직을 수행할 수 없어 조정에 건의하여 가정嘉靖 2년(1523)에 잠시 박사직을 대리하라는 명을 받는다. 가정嘉靖 12년(1533)에 공계가 성장하자 박사 자리를 사양하고 공계에게 물려주었다. 59대손은 맹언박孟彦璞(자 조새朝璽)이 융경隆慶 원년(1567)에 오경박사를 물려받았다. 60대손 맹승광孟承光(1577~1622, 자 영관永觀)은 만력萬曆 29년(1601) 오경박사를 승계한다. 천계天啓 2년(1622)에 문향교聞香教(백련교白蓮教의 지파支派)의 수령 서홍유徐鴻儒(?~1622, 거야巨野 사람)가 추현을 점령하여 맹승광과 그의 장자 맹홍략孟弘略이 집안사람을 거느리고 고용인 30여인과 함께 관병이 성을 공략하는데 협조한다. 그후 관병이 철수한 뒤 교군教軍이 맹씨 집안을 약탈 방화하고 승광 부자와 그의 어머니 공씨孔氏를 죽였다. 난이 평정되고 나서 명나라 조정은 승광에게 태복시소경太僕寺少卿, 어머니 공씨에게 정숙공인貞淑恭人, 아들 홍략에게 태상시승太常寺丞의 벼슬을 내렸다. 61대손은 맹홍예孟弘譽(자 진양振揚)가 천계天啓 3년(1623)에 오경박사직을 받았다. 62대손은 맹문옥孟聞玉(자 우보尤甫)이 숭정崇禎 2년(1629)에 이 직을 받았다. 63대손은 맹정인孟貞仁(1639~1715, 자 정약靜若)이 순치順治 원년(1644)에 세습받고 64대손 맹상계孟尙桂(자 파형播馨)가 강희康熙 55년(1716)에 이어받았다. 65대손 맹연태孟衍泰(자 무동懋東)가 강희 59년(1720)에 받고 66대손 맹흥선孟興銑(자 기휘起輝)는 건융乾隆 7년(1740)에 25세로 조졸하여 세습하지 못했다. 67대는 맹육한孟毓瀚(자 종북鐘北)이 건륭 16년(1751)에 세습직을 승계하고 봉사奉祀를 맡아 주관하였다. 68대는 맹전련孟傳 (자 국모國模)이 건륭 45년(1780)에 받고 69대는 맹계랑孟繼갑(자 체요耀)이 가경嘉慶 20년(1815)에 세습직을 승계하고 봉사를 주관하였으며, 도광道光 4년(1824)에 《맹자세가보孟子世家譜》 편수를 주관하였다. 70대 맹광균孟廣均(1800~1870, 자 경화京華, 호 우산雨山)이 도광 12년(1832)에 한림원 오경박사를 세습하였다. 맹광균은 가경嘉慶、도광道光、함풍咸 、동치同治의 네 조정에 걸쳐 관록 경력이 있고, 전란이 빈번했던 청대의 중하반기에 맹씨 가족의 사무를 38년간 맡으면서 맹묘、맹부孟府、맹자림孟子林을 정리하거나 중수하였고, 단기당斷機堂、술성사述聖祠 등을 건축하였으며, 《삼천지三遷志》를 편찬하고 《맹자세가보》를 수정하였으며 다방면의 문중 자료를 찾아내는 등 맹씨 적손 후예 가운데 탁월한 공적이 있는 인물이 되었다. 71대 맹소전孟昭銓(자 백형伯衡)은 동치 13년(1874)에 세습직을 승계하고 봉사를 주관하였다. 72대 맹헌사孟憲泗(자 법로法魯)는 광서光緖 연간에 세습하여 봉사를 맡았다. 73대손 맹경항孟慶恒(자 송무頌武)이 조졸하여 아우 맹경당孟慶棠(자 택남澤南)이 광서光緖 20년(1894)에 승계하였다. 74대손 맹번기孟繁驥(1907~1990, 자 설생雪生)는 1939년에 한림원 오경박사를 세습받았다가 뒤에 아성봉사관亞聖奉祀官 담당으로 고쳐 불리게 되었는데 1990년 대만臺灣에서 졸하였다. 75대손 맹상협孟祥協은 1990년 아성봉사관을 맡았으며 현재 대만에 산다.

정통육효비전正統六爻秘傳
야학노 인점복전서
野鶴老人占卜全書
기초편、응용편
전2권
이아평李我平 감정鑑定
야학노인野鶴老人 저著
이문휘李文煇 증산增刪
권오달權五達 태로太爐 역주譯註
011-9598-0852e-mail : kod0852@naver.com

도서출판 小康 발행
부산 서구 동대신동 2가 289-6
전화 051)247-9106 팩스 051-248-2176